

## 애착과 사랑양식 및 관련변인들의 관계

###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N=642)을 대상으로 애착과 사랑양식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동시에 사랑양식과 데이트 경험의 관계 및 애착과 사랑양식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중재역할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3범주 및 4범주의 애착척도와 질문지 애착양식척도, 사랑태도척도 및 자기존중감 검사가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여학생들은 놀이적 사랑과 계산적·실용적 사랑에서, 남학생들은 현신적 사랑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어 차이를 보였고 데이트 경험이 많을수록, 현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지 않을수록 그리고 데이트 기간이 길수록 열정적 사랑과 현신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더 많았다. 3범주와 4범주의 애착 그리고 질문지 애착양식척도, 모두에서 안정된 애착은 보다 더 바람직한 사랑양식과 정적 상관을 이루고 안정되지 못한 애착은 그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연구자의 가정대로, 3범주보다 4범주의 애착양식에 따라 사랑양식들이 더 효과적으로 구분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로써 6개의 사랑양식을 유의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다. 또한 자기존중감은 애착은 물론 사랑양식과도 유의한 상관을 이루나 애착과 소유적·의존적 사랑의 관계에서만 자기존중감이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어: 애착, 사랑양식, 자기존중감

사랑은 전형적인 애착형성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구체적인 사랑양식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결과들은 많지 않다. 일찍이 성인의 낭만적 사랑을 애착형성 과정으로 설명한 Hazan과 Shaver(1987)는 각 개인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상응하는 방식으로 이성을 사랑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Ainsworth 등(1978)이 제안한 안정된 애착, 회

피적 애착 그리고 불안/양가적 애착을 갖는 영아의 정서적, 행동적 특성을 기초로 성인기에도 동일한 애착의 질적 특성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개인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라 이성과의 관계형성 방식이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Hazan과 Shaver에 의하면, 안정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신뢰나 우

---

교신저자: 장휘숙, E-mail: hsjang@cun.ac.kr

정과 같은 긍정적 정서에 기초한 사랑을 경험하는 반면, 안정되지 못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정서적으로 변화가 심하고 파트너에게 강한 질투심과 강박관념적으로 몰입하는 사랑을 한다. 144쌍의 데이트 커플을 6개월 동안 종단적으로 연구한 Simpson(1990)도 안정된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대학생들은 낭만적 관계에서 더 많이 상호의존하고 전념하며 상대편을 신뢰할 뿐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만족스럽다고 지각한다고 밝혔다. 대조적으로 회피적 및 불안/양가적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더 적은 신뢰감과 더 적은 만족으로 특징되는 관계를 형성함으로 그들의 관계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Hazan과 Shaver의 연구나 Simpson의 연구는 물론 아동기 이후의 애착에 관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Bowlby(1969)가 제안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의 개념에 기초한다.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으로 애착과 관련된 정보를 조직하고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련의 규칙에 해당한다 (Main, Kaplan & Cassidy, 1985). Bowlby에 의하면, 영아기에 양육자에 대해 형성한 애착특성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념으로 구조화되기 때문에, 질적으로 상이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각기 상이한 정신적 표상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안정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자신을 성격 좋고 친절하며 타인들이 좋아하는 특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자신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념을 형성한다. 그러나 회피적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한 사람들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무관심하며 매사에 회의적인 사람으로 자신을 지각하는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도 역시 신뢰할 수 없고 지나치게 관계에 몰입하려는 사람들이라는 내적 표상을 형성한다. 불안/양가적 애착양식을 형성한 사람들 역시 타인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자주 오해한다는 자신에 대한 표상과 함께 타인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고 그들이 장기적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려고 한다는 내적 표상을 형성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의 질적 특성은 양육자와의 반복된 상호작용 경험을 통하여 내적 작동모델로 구조화되고 그것은 이후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장희숙, 2000, 1998, 1997; Greenberger & McLaughlin, 1998; Paterson 등, 1994, 1995; McCormic & Kennedy, 1994; Hazan & Shaver, 1987), 전형적인 관계형성방식에 해당하는 개인의 사랑양식도 내적 작동모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애착과 사랑양식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이 무엇인가가 정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연구자들 중에는 사랑을 단일차원적인 구성개념으로 정의하는 연구자도 있기는 하지만(Sternberg & Grajeck, 1984; Cook & Wilson, 1979), 많은 연구자들은 사랑을 중다차원적인 구성개념으로 정의한다(Hendrick & Hendrick, 1986; Kelley, 1983; Lee, 1976). 특히 Lee(1976)는 중다의 사랑양식을 제안하고 열정적(eros) 사랑, 놀이적(ludus) 사랑, 우정(storge)사랑, 계산적·실용적(pragma) 사랑, 소유적·의존적(mania) 사랑, 및 헌신적(agape) 사랑의 존재를 가정하였다. Lee에 의하면, 단지 하나의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상이한 유형의 사랑들이 존재하며 각 사랑양식은 모두 타당한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Lee의 분류에서, 열정적 사랑은 이성에 대한 강

한 전념과 몰입을 보이고 이성을 매력적이라고 지각하며 강한 신체적 선호를 나타내는 사랑양식을 의미하며, 놀이적 사랑은 사랑을 남녀간의 계임으로 생각하고 파트너 사이의 속임수는 어떤 한계 내에서 수용될 수 있다는 신념과 함께 깊은 감정의 교류가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우정사랑은 친밀하고 진실하고 지속적이나 열정이 포함되지 않은 사랑형태를 의미하며, 계산적·실용적 사랑은 실리적인 계산이 포함된 사랑형태로서 파트너의 조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쇼핑리스트 사랑이라고도 불리운다. 이와 함께 소유적·의존적 사랑은 파트너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초한 사랑으로 파트너에 대한 불안이나 의심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 그 특징인 반면, 헌신적 사랑은 파트너에게 모든 것을 주는 비요구적 사랑으로 정의된다.

Lee가 제안한 6가지 사랑양식 중 각 개인이 선택하는 사랑양식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인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 분야의 연구들은 그 수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예로서 Hendrick과 Hendrick(1986)이 제작한 사랑태도척도를 사용하여 Lee가 제안한 6가지 사랑양식을 측정하고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의 관계를 연구한 Feeney와 Noller(1990)는 회피적 애착은 열정적 사랑에서는 낮은 점수를 얻고 놀이적 사랑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다고 보고하였다. 대조적으로 불안/양가적 애착은 소유적·의존적 사랑과 헌신적 사랑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우정사랑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연구자들은 안정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열정적 사랑 및 헌신적 사랑 사이에 높은 정적 상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열정적 사랑과 헌신적 사랑에서 안정된 애착과 불안/양가

적 애착간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불안/양가적 피험자들은 신경증적 사랑에 해당하는 소유적·의존적 사랑에서 일관성 있게 높은 점수를 얻고 신중한 사랑을 의미하는 우정사랑과 계산적·실용적 사랑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줌으로써 연구자들은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라 개인의 사랑양식이 달라진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애착을 연구한 Collins와 Read(1990)도 안정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갖는 개인들은 놀이적 사랑, 우정사랑 그리고 계산적·실용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적고 헌신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불안/양가적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소유적·의존적 사랑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는 동시에 우정사랑과 헌신적 사랑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열정적 사랑과 헌신적 사랑에서 안정된 애착과 불안/양가적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정사랑에서도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가능한 하나의 이유로서 개인의 사랑양식들은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단지 세 가지 유형으로만 분류되고 있어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사랑양식을 민감하게 분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3범주의 애착척도와 함께 4범주 애착척도 및 질문지 애착양식척도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내적 작동모델의 측정을 다양화하고 6가지 사랑양식과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한다. 특히 애착의 4범주 척도는 3범주 척도보다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더 세분화하고 있으므로 6가지 사랑양식을 더 민감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랑양식에서 성차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일이나 6가지 사랑양식에서의 남녀 차이에 대해서는 다소 일관성 없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예로서 Hendrick 등(1984)의 연구에서는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놀이적 사랑을 더 많이 하는 반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계산적·실용적 사랑, 우정사랑 그리고 소유적·의존적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열정적 사랑과 헌신적 사랑에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Hendrick 등의 연구와 유사하게 Hendrick과 Hendrick (1986)의 연구에서도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놀이적 사랑을 더 많이 하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계산적·실용적 사랑과 우정사랑 그리고 소유적·의존적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Feeney와 Noller의 연구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더 높은 우정사랑점수를 나타내어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였으나 헌신적 사랑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어 Hendrick 등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개인의 사랑양식은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Feeney와 Noller (1990) 그리고 Hendrick과 Hendrick(1986)은 자기존중감과 열정적 사랑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고 자기존중감과 소유적·의존적 사랑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으며 우정사랑, 계산적·실용적 사랑 그리고 헌신적 사랑에서는 자기존중감에 기인한 어떤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애착과 자기존중감의 관계를 연구한 여러 연구자들 (장휘숙, 1997; Feeney & Noller, 1990; Armsden & Greenberg, 1987)은 안정된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안정되지 못한 애착의 소유자들보다 더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므로 애착과 자기존중감, 사랑양식과 자기존중

감 및 애착과 사랑양식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기존중감은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개인의 사랑양식을 중재하는 변인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6가지 사랑양식간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한다. 동시에 사랑양식에서의 성차는 물론 데이트 경험도 개인의 사랑양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므로 사랑양식과 데이트 경험과의 관계도 함께 연구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과 자기존중감 및 사랑양식간의 관계도 고찰함으로써 자기존중감이 애착과 사랑양식간의 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 규명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녀간의 사랑양식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사랑양식과 데이트 경험간에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애착과 사랑양식간에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자기존중감은 애착과 사랑양식의 관계에서 중재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방법

### 연구 대상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이 연구대상자로 표집되었다. 표집된 모든 학생들은 “사랑에 대한 태도조사”라는 제목의 질문지와 애착관련

질문에 응답하였다. 반응을 누락한 학생이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학생들을 제외한 최종분석 대상자는 642명으로 이중 남학생은 294명 그리고 여학생은 348명이었다. 검사는 심리학 개론 수업시간에 담당교수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검사실시시간은 약 40분이 소요되었다.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연령은 21.77( $SD=2.70$ )세였고 여자 대학생들의 평균연령은 19.92( $SD=1.34$ )세였다.

## 측정도구

### 애착척도

**3범주 애착척도:** Hazan과 Shaver(1987)가 개발하고, 장휘숙(1997, 1998, 2000a, b)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일 문항의 3범주 척도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안정된, 회피적 그리고 불안/양가적 애착양식 각각을 설명하는 문장을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7점 척도 상에 표시하게 한 다음, 위의 세 가지 애착양식 중 자신과 가장 잘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애착양식 하나를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척도는 단일 문항의 범주척도임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연구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7점 척도 상에 응답한 결과와 세 가지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제외된 연구대상자의 비율은 2% 미만이었다.

**4범주 애착척도:** 3범주 애착척도를 기초로 Bartholomew와 Horowitz (1991)가 제작한 단일 문항의 4범주 애착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이성이나 친구 혹은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현재의 애착양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두 개(긍정적, 부정적)의 자기모델과 두 개(긍정적, 부정적)의 타인모델을 포함하는 이 척도는 4 가지 유형(안정형, 몰입형, 두려워하는/회피형, 거부적/회피형)의 애착양식을 구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연구대상자들은 네 가지 애착양식 각각을 설명하는 문장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7점 척도 상에 표시한 다음, 상기의 네 가지 애착양식 중 자신과 가장 잘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양식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3범주 애착척도에서와 동일하게 7점 척도 상에 응답한 결과와 네 가지 양식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제외된 연구대상자의 비율은 2%미만이었다. 반복된 연구를 통하여 4범주 애착척도는 3범주 애착척도보다 성인의 내적 작동모델을 더 민감하게 구별할 수 있는 척도로 확인되고 있다(장휘숙, 1997, 2000, 2001).

**질문지 애착양식척도:** Simpson(1990)의 애착양식척도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척도는 Hazan과 Shaver(1987)의 3범주 척도에 기초하여 제작된 질문지 척도로서 범주척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5개의 안정된 문항, 4개의 회피적 문항 그리고 4개의 불안/양가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번역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자가 번역한 문항들을 한국말을 할 수 있으면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인이 다시 영어로 번역하게 함으로써 번역의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Cronbach  $\alpha$ 로 측정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안정된 요인 0.62, 회피적 요인 0.68 그리고 불안/양가적 요인 0.64로서 다소 낮은 값을 나타

내었으나, 요인들간의 상호상관을 계산한 결과 애착이론과 일치되게 안정된 애착은 회피적 애착 및 불안/양가적 애착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이루고 회피적 애착과 불안/양가적 애착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존재하므로 질문지 애착척도로서 사용 가능한 척도임이 확인될 수 있었다(표 4 참조).

### 사랑태도척도

Hendrick 등(1984)이 개발하고 Hendrick과 Hendrick(1986)에 의해 수정된 42문항의 사랑태도척도(Love Attitudes Scale)가 사용되었다. 6개의 사랑양식을 측정할 수 있는 이 척도는 각 사랑양식마다 7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체 4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형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대상자들에 따라 6개 사랑양식에 대한 프로파일이 그려질 수 있다. 이 질문지는 현재 사귀고 있는 파트너를 생각하면서 척도를 완성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만약 현재 사귀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최근의 데이트 파트너를 생각하면서 대답해야 하며, 결코 사랑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자신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문항을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문항의 번역에서 오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자가 번역한 문항들을 한국말을 할 수 있으면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인이 다시 영어로 번역하게 함으로써 타당한 문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Hendrick과 Hendrick(1986)의 연구에서 우정사랑을 제외한 모든 사랑양식들의 Cronbach  $\alpha$ 로 측정한 내적 일관성 계수는 .70이상이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열정적 사랑 0.76, 놀이적 사랑 0.72, 우정사랑 0.76, 계산적 · 실용적

사랑 0.76, 소유적 · 의존적 사랑 0.78 그리고 헌신적 사랑 0.86이었다.

### 자기존중감 검사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Rosenberg(1965)의 자기존중감 검사가 사용되었다. 전체적 자기존중감을 측정하는 이 검사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높은 신뢰도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로 측정된 이 검사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0.96이었다.

## 결과

### 사랑양식에서의 성차

남녀 대학생들의 사랑양식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6개 사랑양식 각각에 대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놀이적 사랑( $t=2.04$ ,  $p<.05$ ), 계산적 · 실용적 사랑( $t=3.61$ ,  $p<.001$ ) 그리고 헌신적 사랑( $t=12.35$ ,  $p<.001$ )에서 유의한 성차가 있었다. 그러나 열정적 사랑, 우정사랑, 그리고 소유적 · 의존적 사랑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놀이적 사랑과 계산적 · 실용적 사랑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고 헌신적 사랑에서는 유의하게 더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대학생들은 사랑을 놀이나 장난처럼 생각하고 이성과의 관계에서 더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자 대학생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 사랑양식과 데이트 경험과의 관계

사랑양식과 데이트 경험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누구를 사랑한 경험이 있습니까?”, “현재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번 데이트를 시작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하십니까?”를 질문하였다. 사랑양식에서 성차가 나타났으므로 이후의 모든 분석은 남녀를 구분하여 수행되었다.

사랑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남자 대학생은 34명(11.60%), 1-2회 있다, 175명(59.73%) 그리고 3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84명(28.67%)이었으며 동일한 문항에 대한 여자 대학생들의 반응은 각각 69명(20.18%), 221명(64.62%) 그리고 52명(15.20%)이었다. 세 가지 반응유형을 독립변인으로 각 사랑양식에 대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남자 대학생들은 사랑한 회수에 따라 열정적 사랑, 계산적·실용적 사랑 그리고 혼신적 사랑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여자

대학생들은 놀이적 사랑과 소유적·의존적 사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후속분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3회 이상의 데이트 경험이 있는 남학생들은 데이트 경험이 전혀 없는 남학생들보다 열정적 사랑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고 데이트 경험이 전혀 없거나 1-2회의 데이트 경험을 가진 학생들보다 혼신적 사랑에서 더 높은 점수를 그리고 계산적·실용적 사랑에서는 유의하게 더 낮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남학생들은 사랑한 경험이 많을수록 열정적 사랑과 혼신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많은 반면, 계산적·실용적 사랑을 할 가능성은 적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여학생들의 경우, 누구를 사랑한 경험이 전혀 없는 여학생들이 1-2회의 사랑경험이 있는 여학생들보다 놀이적 사랑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고 3회 이상의 사랑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들은 사랑경험이 전혀 없거나 1-2회의 사랑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들보다 소유적·의존적 사랑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은 사랑한 경험이 많을수록 소유

표 1. 사랑한 회수에 따른 6개 사랑양식에서의 차이(괄호안은 표준편차)

구 분	열정적 사랑	놀이적 사랑	우정사랑	계산적·실용적 사랑	소유적·의존적 사랑	혼신적 사랑
전혀 없음	3.02(0.74)	2.23(0.58)	3.07(0.80)	3.00(0.59)	2.61(0.77)	3.20(0.61)
1-2회	3.30(0.61)	2.14(0.47)	2.97(0.68)	2.66(0.62)	2.65(0.66)	3.56(0.69)
3회 이상	3.34(0.61)	2.28(0.54)	2.87(0.72)	2.59(0.73)	2.64(0.54)	3.66(0.65)
F <sub>검</sub>	3.41*	2.16	1.14	4.88**	0.04	5.62**
사후검증	1-3			1-2, 1-3		1-2, 1-3
전혀없음	3.15(0.60)	2.43(0.56)	3.09(0.72)	2.83(0.64)	2.43(0.69)	2.77(0.67)
1-2회	3.22(0.55)	2.21(0.50)	3.06(0.71)	2.88(0.64)	2.68(0.65)	2.94(0.65)
3회 이상	3.21(0.46)	2.31(0.49)	2.92(0.66)	2.81(0.69)	2.78(0.59)	2.90(0.58)
F <sub>검</sub>	0.40	5.33*	1.05	0.27	5.19**	1.66
사후검증		1-2			1-2, 1-3	

\*p<.05, \*\*p<.01, \*\*\*p<.001 이하 동일함

주) 가는 글자 남학생 결과, 굵은 글자는 여학생 결과, 이하 동일함

표 2. 현재의 사랑여부에 따른 6개 사랑양식에서의 차이(괄호안은 표준편차)

구 분	열정적 사랑	놀이적 사랑	우정사랑	계산적·실용적 사랑	소유적·의존적 사랑	현신적 사랑
예	3.13(0.62)	2.23(0.49)	2.96(0.70)	2.83(0.65)	2.57(0.65)	3.44(0.62)
아니오	3.42(0.61)	2.15(0.52)	2.96(0.72)	2.54(0.64)	2.71(0.62)	3.64(0.72)
F값	16.00**	1.55	0.01	3.72*	3.72*	6.50**
예	3.14(0.55)	2.33(0.52)	3.03(0.66)	2.85(0.66)	2.54(0.61)	2.79(0.65)
아니오	3.28(0.54)	2.20(0.50)	3.07(0.75)	2.87(0.64)	2.76(0.69)	3.01(0.62)
F값	5.43**	5.83**	0.28	0.16	10.09***	10.12***

적·의존적 사랑을 하고 사랑한 경험이 적을수록 놀이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현재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반응한 남자 대학생은 140(47.78%)명이었고 ‘아니오’라고 반응한 남학생은 153(52.22%)명이었다. 또한 ‘예’라고 반응한 여자 대학생은 182(52.91%)명, ‘아니오’라고 반응한 여자 대학생은 162(47.09%)명이었다. 두 가지 반응 양식을 독립변인으로 6개 사랑양식 각각을 일원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 대학생들은 현재의 사랑여부에 따라 열정적 사랑, 계산적·실용적 사랑, 소유적·의존적 사랑 그리고 현신적 사랑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여학생들은 열정적 사랑, 놀이적 사랑, 소유적·의존적 사랑 그리고 현신적 사랑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남자 대학생들은 계산적·실용적 사랑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고 그렇지 않은 남학생들은 열정적 사랑과 소유적·의존적 사랑 및 현신적 사랑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어 차이를 보였다. 또한 현재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여학생들은 놀이적 사랑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고 그렇지 않은 여학생들은 열정적 사랑과 소유적·의존적 사랑 그리

고 현신적 사랑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모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지 않을 때는 열정적 사랑이나 소유적·의존적 사랑 혹은 현신적 사랑을 꿈꾸지만, 실제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는 계산적·실용적 사랑이나 놀이적 사랑을 할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한번 데이트를 시작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하십니까?”라는 질문에 3개월 이하라고 응답한 남자 대학생은 68(25.56%)명, 3개월-1년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92(34.59%)명 그리고 1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106(39.85%)명이었다. 또한 3개월 이하라고 응답한 여자 대학생은 84(28.77%)명, 3개월-1년 106(36.30%)명 그리고 1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여학생은 102(34.93%)명이었다. 세 개의 데이트 기간을 독립변인으로 6개 사랑양식 각각을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학생들의 경우 데이트 기간에 따라 열정적 사랑과 놀이적 사랑 그리고 계산적·실용적 사랑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여학생들은 열정적 사랑과 놀이적 사랑, 우정사랑 그리고 현신적 사랑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후속분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1년 이상 데이트를 지속한 남자 대학생들은 3개월 이하나 3개월-1년 동안 데이트를 지속한

표 3. 데이트 기간에 따른 6개 사랑양식에서의 차이(괄호안은 표준편차)

	열정적 사랑	놀이적 사랑	우정사랑	계산적·실용적 사랑	소유적·의존적 사랑	현신적 사랑
3개월 이하	3.09(0.68)	2.41(0.55)	2.89(0.71)	2.64(0.61)	2.58(0.62)	3.39(0.62)
3개월-1년	3.21(0.56)	2.20(0.43)	2.90(0.69)	2.82(0.68)	2.68(0.62)	3.57(0.69)
1년 이상	3.48(0.58)	2.08(0.46)	3.04(0.71)	2.58(0.65)	2.64(0.65)	3.65(0.71)
F값	9.60***	9.35***	1.38	3.27*	0.46	2.86
사후검증	1-3, 2-3	1-2, 1-3		2-3		
3개월 이하	3.04(0.52)	2.45(0.50)	3.00(0.67)	2.82(0.67)	2.56(0.68)	2.71(0.62)
3개월-1년	3.23(0.50)	2.31(0.49)	2.92(0.68)	2.89(0.67)	2.67(0.62)	2.91(0.69)
1년 이상	3.24(0.56)	2.06(0.51)	3.15(0.74)	2.91(0.62)	2.73(0.71)	3.02(0.57)
F값	4.18**	14.84***	3.02*	0.46	1.43	5.72**
사후검증	1-2, 1-3	1-3, 2-3	2-3			1-3

남자 대학생들보다 열정적 사랑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고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데이트를 지속한 남자 대학생들은 3개월-1년 혹은 1년 이상 데이트한 남학생들보다 놀이적 사랑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며 3개월에서 1년 동안 데이트를 지속한 남학생들이 1년 이상 데이트를 지속한 남학생들보다 계산적·실용적 사랑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는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들의 경우, 3개월에서 1년 혹은 1년 이상 데이트를 지속한 사람들이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데이트를 지속한 사람들보다 열정적 사랑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는 반면,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데이트를 지속한 여학생들은 3개월에서 1년 및 1년 이상 동안 데이트를 지속한 여학생들보다 놀이적 사랑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년 이상 데이트를 지속한 여학생들은 3개월에서 1년 동안 데이트를 지속한 여학생들보다 우정사랑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고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데이트를 지속한 여학생들보다 현신적 사랑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하면 남녀 대학생 모두 데이트를 지

속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열정적 사랑이나 현신적 사랑 혹은 우정사랑을 할 가능성이 큰 반면, 데이트 기간이 짧을수록 놀이적 사랑이나 계산적·실용적 사랑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애착과 사랑양식과의 관계

이 연구의 일차적 목적인 애착과 사랑양식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13문항의 질문지 애착양식척도의 3요인과 6개 사랑양식과의 상관을 계산하였다(표 4참조).

표 4를 통하여 남녀 모두에서 안정된 애착은 열정적 사랑 및 현신적 사랑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그리고 회피적 애착과 불안/양가적 애착은 열정적 사랑 및 현신적 사랑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회피적 애착과 불안/양가적 애착은 남학생들의 경우 놀이적 사랑 및 소유적 의존적 사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회피적 애착과 놀이적 사랑 그리고 회피적 애착과 계산적·실용적 사랑간에 유의한 정적 상

표 4. 애착과 사랑양식간의 상관관계

	안정된 애착	회피적 애착	불안/양가 적 애착	열정적 사랑	놀이적 사랑	우정사랑	계산적 · 실용적 사랑	소유적 · 의존적 사랑	현신적 사랑
안정된 애착	남	-0.570***	-0.249***	0.212***	0.002	-0.012	-0.101	-0.068	0.241***
	여	-0.576***	-0.107*	0.225***	-0.024	0.037	-0.063	0.029	0.218***
회피적 애착	남	-0.570***	0.292***	-0.171**	0.173**	0.010	0.105	0.161***	-0.201***
	여	-0.576***	0.179***	-0.187**	0.168**	-0.066	0.104*	0.081	-0.203***
불안/ 양가적 애착	남	-0.249***	0.292***		-0.249***	0.164***	0.070	0.104	0.395***
	여	-0.107*	0.179***		-0.134*	0.119*	0.046	0.049	0.429***
자기 존중감	남	0.229***	-0.222**	-0.389***	0.285***	-0.084	0.002	0.029	-0.265***
	여	0.193***	-0.133**	-0.401***	0.275**	-0.061	-0.091	0.100	-0.192***
									-0.116*

관이 있었고 불안/양가적 애착과 놀이적 사랑 및 불안/양가적 애착과 소유적 · 의존적 사랑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안정된 애착을 지니고 있는 남녀 대학생들은 열정적 사랑이나 현신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많은 반면, 회피적 애착과 불안/양가적 애착을 지니고 있는 남자 대학생들과 불안/양가적 애착을 지니고 있는 여학생들은 열정적 사랑이나 현신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적고 놀이적 사랑이나 소유적 · 의존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많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회피적 애착을 지니고 있는 여학생들은 열정적 사랑과 현신적 사랑을 할 가능성은 적고 계산적 · 실용적 사랑을 할 가능성은 커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애착과 사랑양식간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애착의 3범주와 4범주를 독립변인으로 6가지 사랑양식 각각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6개의 사랑양식에서는 물론, 애착의 3범주( $\chi^2=8.358$ ,  $df=2$ ,  $p<.05$ )와 애착의 4범주( $\chi^2=21.111$ ,  $df=2$ ,  $p<.001$ ) 모두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으므로 남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5는 애착의 3범주(안정된, 회피적, 불안/양가적 애착)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6개 사랑양식 각각을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표 5에 의하면, 남학생들은 애착양식에 따라 소유적 · 의존적 사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여학생들은 열정적 사랑과 소유적 · 의존적 사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안정된 애착을 지니고 있는 남자 대학생들은 회피적 그리고 불안/양가적 애착을 지니고 있는 남학생들보다 소유적 · 의존적 사랑에서 더 낮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안정된 애착을 지니고 있는 여자 대학생들은 회피적 애착을 지니고 있는 여학생들보다 열정적 사랑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고 불안/양가적 애착을 지니고 있는 여학생들보다 소유적 · 의존적 사랑에서 더 낮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피적 애착을 지니고 있는 여학생들은 불안/양가적 애착을 지니고 있는 여학생들보다 소유적 · 의존적 사랑에서 더 낮은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불안/양가적 애착양식을 갖는 남녀 대학생들이 소유적 · 의존적 사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불안/양가적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는 남녀 대학생들은 소유적 · 의존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큰 반면, 안정된 애착양식을

표 5. 3범주의 애착양식에 따른 6개 사랑양식에서의 차이(팔호안은 표준편차)

	열정적 사랑	놀이적 사랑	우정사랑	계산적·실용적 사랑	소유적·의존적 사랑	현신적 사랑
안정된	3.35(0.62)	2.19(0.51)	2.92(0.72)	2.65(0.64)	2.54(0.61)	3.58(0.70)
회피적	3.13(0.64)	2.14(0.47)	3.00(0.69)	2.76(0.76)	2.78(0.68)	3.46(0.62)
불안/양가적	3.20(0.58)	2.24(0.56)	2.99(0.70)	2.67(0.62)	2.96(0.64)	3.55(0.70)
F값	3.14	0.46	0.37	0.69	9.16***	0.67
사후검증					1-2, 1-3	
안정된	3.29(0.51)	2.24(0.52)	3.09(0.71)	2.87(0.61)	2.56(0.63)	2.94(0.63)
회피적	3.02(0.57)	2.30(0.52)	3.01(0.68)	2.84(0.67)	2.68(0.64)	2.76(0.62)
불안/양가적	3.27(0.60)	2.37(0.50)	2.92(0.69)	2.91(0.83)	3.19(0.70)	3.06(0.69)
F값	9.32***	1.01	1.12	0.11	13.37***	3.80
사후검증	1-2				1-3, 2-3	

지니고 있는 여학생들은 열정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애착의 4범주(안정형, 몰입형, 두려워하는/회피형, 거부적/회피형 애착)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6개 사랑양식 각각을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남학생들은 4가지 애착양식에

따라 놀이적 사랑과 소유적·의존적 사랑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여학생들은 열정적 사랑과 소유적·의존적 사랑 그리고 현신적 사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려워하는/회피형 애착을 갖는 남학생들이 거부적/회피형 애착을 갖는 남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놀이적 사랑점수를 얻는 것

표 6. 4범주의 애착양식에 따른 6개 사랑양식에서의 차이(팔호안은 표준편차)

	열정적 사랑	놀이적 사랑	우정사랑	계산적·실용적 계산	소유적·의존적 사랑	현신적 사랑
안정형 애착	3.38(0.61)	2.21(0.50)	2.90(0.70)	2.65(0.64)	2.46(0.56)	3.56(0.71)
몰입형 애착	3.20(0.53)	2.19(0.53)	3.13(0.71)	2.66(0.66)	2.91(0.68)	3.65(0.64)
두려워하는/회피형 애착	3.19(0.56)	2.37(0.48)	2.91(0.63)	2.72(0.72)	3.01(0.70)	3.39(0.72)
거부적/회피형 애착	3.06(0.88)	1.93(0.48)	2.82(0.69)	2.80(0.77)	2.70(0.63)	3.45(0.77)
F값	3.06	3.95**	1.99	0.48	12.18**	1.09
사후검증		3-4			1-2, 1-3	
안정형 애착	3.30(0.51)	2.26(0.54)	3.04(0.71)	2.84(0.57)	2.54(0.64)	2.93(0.61)
몰입형 애착	3.20(0.57)	2.34(0.56)	3.11(0.72)	2.86(0.78)	2.80(0.65)	3.01(0.69)
두려워하는/회피형 애착	3.03(0.51)	2.17(0.44)	3.13(0.70)	2.89(0.69)	2.80(0.71)	2.84(0.60)
거부적/회피형 애착	3.04(0.66)	2.38(0.41)	2.80(0.49)	2.96(0.63)	2.54(0.65)	2.47(0.61)
F값	4.73**	1.67	1.63	0.30	4.29**	5.56**
사후검증	1-3				1-2	1-4, 2-4

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정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남자 대학생들은 몰입형 애착과 두려워하는/회피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남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낮은 소유적·의존적 사랑점수를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는/회피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남학생들이 놀이적 사랑과 소유적·의존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라는 것이다. 여자 대학생들의 경우 안정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여학생들이 두려워하는/회피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여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열정적 사랑점수를 나타내었고 몰입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여학생들이 안정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여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소유적·의존적 사랑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안정형 애착과 몰입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여학생들은 거부적/회피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여학생들보다 현신적 사랑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밝혀졌다.

4범주의 애착양식에서 안정형 애착은 긍정적 자기모델과 긍정적 타인모델로 구성되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반면, 두려워하는/회피형 애착은 부정적 자기모델과 부정적 타인모델을 지니고 있다. 또한 몰입형 애착은 부정적 자기모델과 긍정적 타인모델을 그리고 거부적/회피형 애착은 긍정적 자기모델과 부정적 타인모델을 지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4범주의 애착 특성을 고려할 때, 자기모델과 타인모델이 모두 긍정적인 안정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여학생들이 열정적 사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고 자기모델과 타인모델이 모두 부정적인 두려워하는/회피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남학생들이 놀이적 사랑과 소유적·의존적 사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다는 것은 타당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부정적 자기모델과 긍정적 타인모델을 지니고 있는 몰입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여학생들이 소유적·

의존적 사랑과 극단적 자기희생을 포함하는 현신적 사랑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는 것 역시 타당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안정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여자대학생들 역시 현신적 사랑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논의를 필요로 하였다.

### 애착과 자기존중감 및 사랑양식과의 관계

애착과 자기존중감 및 사랑양식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각 변인들간의 상호상관을 계산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같이, 안정된 애착은 자기존중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갖고 회피적 및 불안/양가적 애착과는 일관성있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기존중감은 남녀 모두에서 열정적 사랑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소유적·의존적 사랑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흥미롭게도 남성들의 경우 자기존중감은 현신적 사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차이를 보였다. 즉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남녀 대학생들은 열정적 사랑을 하고 낮은 자기존중감을 갖는 남녀 학생들은 소유적·의존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높은 자기존중감을 갖는 남성들은 현신적 사랑을 하지만, 현신적 사랑을 하는 여성들은 오히려 낮은 자기존중감을 갖는 여성들이라는 것이다.

자기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을 갖는 열정적 사랑, 소유적·의존적 사랑 그리고 현신적 사랑과 애착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중재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경로계수로 사용하여 세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림 1, 2, 3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팔호안의 수치

는 여성의 경로계수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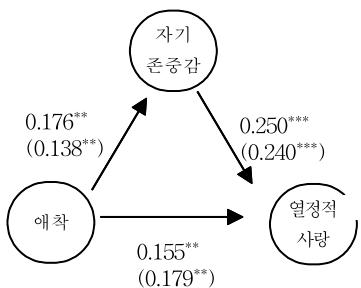


그림 1. 애착-자기존중감-열정적 사랑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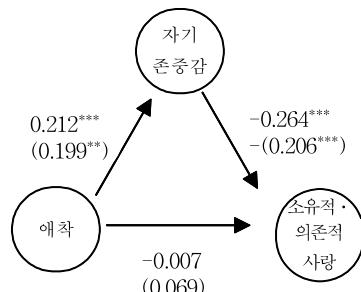


그림 2. 애착-자기존중감-소유적·의존적 사랑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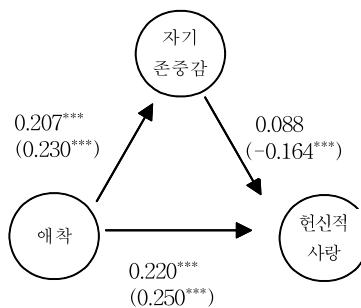


그림 3. 애착-자기존중감-현신적 사랑의 관계

그림 1, 그림 2 그리고 그림 3은 애착과 소유적·의존적 사랑의 관계에서만 자기존중감이 중재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변인이 중재변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독립

변인 수준에서의 변이가 중재변인에서의 변이를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고 중재변인에서의 변이는 종속변인에서의 변이를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동시에 독립변인에서의 변이는 중재변인을 통해서만 종속변인에서의 변이를 유의하게 설명할 수 없어야 하므로(장휘숙, 1994; Baron & Kenny, 1986)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건은 그림 2의 애착-자기존중감-소유적·의존적 사랑의 관계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과 그림 3에서는 애착이 열정적 사랑과 현신적 사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자기존중감의 순수한 중재역할은 약화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애착은 자기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자기존중감은 소유적·의존적 사랑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애착은 소유적·의존적 사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자기존중감을 거쳐 영향을 줌으로써 자기존중감이 애착과 소유적·의존적 사랑의 관계에서 중재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된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고 또한 높은 자기존중감을 갖는 사람은 소유적·의존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개인의 자기존중감은 소유적·의존적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 논의

이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N=642)의 애착양식과 사랑양식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동시에 남녀간의 사랑양식에 차이가 있는가, 사랑양식과 데이트 경험간에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애착과 사랑양식간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를 함께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3범주 애착척도와 4범주 애착척도 및 질문지 애착양식척도를 사용하여 대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측정하고 Hendrick 등(1984)이 개발하고 Hendrick과 Hendrick(1986)에 의해 수정된 사랑태도척도를 사용하여 6개의 사랑양식을 측정하는 동시에 개인의 전체적 자기존중감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의 사랑양식은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남녀간에 그리고 데이트 경험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자기존중감도 개인의 사랑양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연구된 변인들 중 어느 하나의 변인도 개인의 사랑양식을 충분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우선 이 연구에서 나타난 사랑양식에서의 성차는 선행연구들(Hendrick & Hendrick, 1986; Hendrick 등, 1984)과 일치하는 결과였으나 성차의 양상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선행연구들이 남자 대학생들은 여자 대학생들보다 놀이적 사랑을 더 많이 하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우정사랑, 계산적·실용적 사랑 그리고 소유적·의존적 사랑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남자 대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헌신적 사랑을 더 많이 하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놀이적 사랑과 계산적·실용적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구의 연구는 물론 우리 문화의 성역할 고정관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물론 남자 대학생들이 여자 대학생들보다 헌신적 사랑을 더 많이 한다는 Feeney와 Noller(1990)의 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남성과 헌신적 사랑 그리고 여성과 놀이적 사랑의 연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성역할 고정관념적으로 볼 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헌신적 사랑을 더 많이 하고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사랑을 놀이나 장난으로 생각할

것으로 기대되나 정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어 성역할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물론 사랑하는 파트너인 동시에 잠재적 공급자를 필요로 하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계산적·실용적 사랑을 더 많이 한다는 점에서는 선행연구와 차이가 없었다.

데이트 경험과 관련한 결과들에서도 선행연구와 단지 부분적으로 일치할 뿐이었다. 그 예로서 이 연구와 비슷한 연령의 대학생들을 연구한 Hendrick과 Hendrick(1986)의 연구에서는 사랑의 경험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놀이적 사랑을 하고 현재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정적 사랑이나 우정사랑 혹은 소유적·의존적 사랑을 하고 놀이적 사랑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사랑의 경험이 많을수록 현재 데이트하고 있지 않을수록 그리고 데이트 기간이 길수록 열정적 사랑이나 헌신적 사랑을 하고 놀이적 사랑이나 계산적 실용적 사랑을 할 가능성은 적어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이기보다는 시대 변화에 기인된 사랑양식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보게 한다. 특히 여성들은 데이트 경험이 많을수록, 현재 누구를 사랑하고 있을수록 그리고 누구를 사랑한 기간이 짧을수록 놀이적 사랑을 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 사회의 변화된 성역할 의식을 실감하게 하였다.

질문지 애착양식척도와 사랑양식간의 관계에서 안정된 애착은 열정적 사랑이나 헌신적 사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고 회피적 애착과 불안/양가적 애착은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랑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그리고 놀이적 사랑과 소유적·의존적 사랑(남학생) 혹은 계산적·실용적 사랑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연구자의 가정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3범주의 애착양식 중 불안/양가적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소유적·의존적 사랑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어 Feeney와 Noller(1990) 및 Collins와 Read(1990)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와함께 4범주의 애착양식도 자기모델 및 타인모델의 특징적 특성과 상응하는 사랑양식들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냄으로써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개인의 사랑양식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예언변인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안정된 애착과 열정적 사랑 그리고 안정된 애착과 헌신적 사랑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을 뿐 아니라 여성들의 경우에 4범주의 애착양식 중 안정형 애착이나 몰입형 애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헌신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가장 커 헌신적 사랑은 안정형 애착과 몰입형 애착에 따라 구분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Feeney와 Noller 연구에서도 열정적 사랑과 헌신적 사랑은 안정된 애착과 불안/양가적 애착에 따라 유의하게 구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Collins와 Read의 연구에서도 안정된 애착과 불안/양가적 애착 모두 헌신적 사랑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음으로써 열정적 사랑과 헌신적 사랑의 개념구분은 물론 두 가지 사랑양식을 측정하는 사랑태도척도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가정대로 4범주의 애착양식은 3범주의 애착양식 보다 6개의 사랑양식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구분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3범주나 4범주의 애착양식 모두 놀이적 사랑, 우정사랑 그리고 계산적·실용적 사랑을 유의하게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개인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로써 6개의 사랑양식을 유의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대한 가능한 이유로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자기모델과 타인모

델을 구성하고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구조화되는데 반하여, 사랑태도척도는 지속적인 성격특성의 지표이기보다는 비교적 변화 가능한 태도의 측정치라는 것이다(Lee, 1973). 문제는 6개의 사랑양식 중 열정적 사랑과 소유적·의존적 사랑은 강한 정서를, 놀이적 사랑과 우정사랑 및 계산적·실용적 사랑은 낮은 정서를 그리고 헌신적 사랑은 보통 정도의 정서적 강도를 포함하기 때문에(Hendrick & Hendrick, 1986), 개인의 기질적 특성을 반영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서적 강도는 개인의 기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때문에, 사랑양식은 선천적일 뿐 아니라 개인의 성격특성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의 사랑양식이 성격특성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변화 가능한 태도적 측면인가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긴 하지만, 이 연구는 개인의 사랑양식은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보다는 오히려 데이트 경험과 같은 현재와 과거의 사랑경험이나 사랑횟수와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였다.

흥미롭게도 자기존중감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열정적 사랑을 하고 자기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소유적·의존적 사랑을 하는 동시에 우정사랑과 계산적·실용적 사랑에서는 자기존중감에 따른 차이가 없어 선행연구(Feeney & Noller, 1990; Hendrick & Hendrick, 1986)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자기존중감 수준이 높은 남성과 자기존중감 수준이 낮은 여성들이 헌신적 사랑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헌신적 사랑에서는 자기존중감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Feeney와 Noller의 연구 및 Hendrick과 Hendrick의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즉 한국 남자 대학생들은 여자 대학생들보다 헌신적 사랑을 더 많이 할 뿐 아니라 자기존중감이 높은 남성들과 자기존중감이 낮은 여성들

이 헌신적 사랑을 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 사회의 변화된 사랑방식을 반영할 뿐 아니라 이제 헌신적 사랑은 연약한 여성들의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자신감을 갖는 남성들의 사랑방식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비록 자기존중감의 중재역할이 애착과 소유적·의존적 사랑의 관계에서만 확인될 수 있어 후속연구를 필요로 하기는 하였지만, 이 연구는 자기존중감이 소유적·의존적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동시에 이 연구는 자기존중감과 같은 제3의 변인들이 사랑양식과의 관계에서, 애착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사랑양식에 영향을 주는 제3의 변인들을 확인하는 후속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다. 애착척도의 문제로서 이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의 질문지 애착척도만을 사용하여 개인의 애착양식을 측정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면접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의 애착양식을 측정함으로써 애착과 사랑양식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은 소유적·의존적 사랑을 하고 성인초기에 이르면 열정적 사랑이 그리고 성인중기와 성인후기에는 우정사랑이 개인의 우세한 사랑양식일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사랑양식의 연령에 따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연구설계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장휘숙(1994). 발달심리학 연구에서의 중재와 조절: 자기효율성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1), 210-219.
- 장휘숙(1997).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 123-138.
- 장휘숙(1998). 애착에 대한 어머니의 내적 작동모델, 남편에 대한 애착 및 자녀의 생활만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2), 121-133.
- 장휘숙(2000a). 애착과 죽음불안 및 관련변인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127-143.
- 장휘숙(2000b).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1).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115-130.
- 장휘숙(2001). 애착과 다섯 가지 성격특성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105-119.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s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1, 226-244.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Cook, M., & Wilson, G. (Eds.). (1979). *Love and attraction: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xford : Pergamon Press.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s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281-291.
- Greenberger, E., & McLaughlin, C. S. (1998). Attachment, coping and explanatory style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2), 121-139.
- Hazan, C., & Shaver, P. (1986). *Parental caregiving style questionnaire*. Unpublished questionnaire.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endrick, C., & Hendrick, S. (1986). A theory and method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2), 392-402.
- Hendrick, C., Hendrick, S., Foote, F. H., & Slapion-Foote, M. J. (1984). Do men and women love differentl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 177-195.
- Kelley, H. H. (1983). Love and commitment. In H. H. Kelley, E. Berscheid, A. Christensen, J. H. Harvey, T. L. Huston, G. Levinger,
- E. McClintock, L. A. Peplau, & D. R. Peterson (Eds.),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Freeman.
- Lee, J. A. (1977). A typology of styles of lov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 173-182.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Bretherton, I., and Waters, E.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McCormick, C. B., & Kennedy, J. H. (1994). Parent-child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1), 1-18.
- Pa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 father,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579-601.
- Paterson, J. E., Pryor, J., & Field, J. (1995).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3), 365-367.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 Simpson, J. A. (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971-980.

Sternbeg, R. J., & Grajek, S. (1984). The nature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312-329.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02. Vol. 15, No. 4, 93 - 111

---

## Attachments and Styles of love

**Hwee 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Questionnaire measures of attachment style, beliefs about relationships, loves styles and self-esteem were administered to 642 undergraduates. In both 3-group model and 4-group model of attachment styles, secure attachment was related to more favorable love styles positively and unsecured attachment was related to more unfavorable love styles positively. Also love styles were affected on previous love experiences. As postulated, 4-group model seemed to classify love styles more sensitively than 3-group model of attachment styles but it was difficult to say that 6 love styles were classified successfully by attachment styles. In addition self-esteem was correlated with attachment and love styles, but it was possible to mediate only the relationship of attachment and mania(possessive, dependent love).

*keywords: attachment · love style · self-esteem*